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보고회 개최

미주한상총연, 대회 성공 이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 감사패 전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김기문 회장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을 비롯한 대회 조직위원회 및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되었으며,

나흘간의 기업전시회를 통해 △총 6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K-푸드, K-뷰티 중심의 4,990만 달러 규모의 현장계약 체결 △4,5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 계약 등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캘리 레플러 미국 중소기업청장 △네이든 딜 전 조지아 주지사 △휴 맥도날드 아칸소 상부무 장관 등 미국 주요 정계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기존의 재외동포경제인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차원을 넘어 민간 외교의 장으로 발돋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과를 이끌어내고, 미국 주요 정계인사들과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을 실감하며 대회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미주 재외동포경제인 여러분이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파트너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상근 기자

도민의견반영 적극행정 계획 수립

전개공 적극행정 추진, 도민 편익 확대 기대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도민의 불편해소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도민경영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2025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규정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뜻한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 업무를 도민 편익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비전, 목표 및 세부과제 등을 마련했다.

2025년도 적극행정 비전은 '적극행정 확산, 도민행복 실현'이며, 추진목표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도민 만족도 증대'로 설정하였으며, 적극행정 시스템 개선, 적극행정 지원·보호 강화,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노력,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라는 4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12개 세부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시행과제별 주요 내용은 법령과 내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도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고의나 중과실, 특혜성 업무처리가 아닌 경우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에게는 외부 감사에서 징계 요구가 내려지더라도 면책을 부여하고, 감사 대응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적극행정을 많이 발굴해 추진한 직원에게 인사상 혜택 및 포상 등의 보상을 통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해 도민의 일꾼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김대근 사장은 "적극행정을 맘놓고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책 발굴로 직원들이 도민편익 증진을 위해 매진해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랑 받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농어촌公, 공공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 8종으로 확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30일부터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삼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를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서류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농지은행 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서류 8종을 인증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참여자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8종)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다.

또한 연간 약 10만 장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종이 사용 절감은 물론 직원 업무 처리 효율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고, 서비스 품질은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사는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수출기업 교류회 개최

도-경제통상진흥원, 변화하는 통상환경… 수출기업 맞춤형 대응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20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2025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수출기업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도내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 60여 개사가 참석해 △통상정책 변화 및 환율 전망 설명회 △기업별 맞춤형 1:1 수출 컨설팅 △기업 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수출기업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환율 변동성이 심화되었고,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중동 지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경진원은 수출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1:1 상담을 제공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통상정책 변화와 환율 전망을 주제로 한 설명회와 함께 수출기업 맞춤형 1:1 상담이 진행되었다. 참가기업들은 각자의 현안에 맞춘 실질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행사는 두 가지 주요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설명회로, 전용대 관세사가 강사로 통상정책 변화와 환율 전망에 대해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은 1:1 수출 컨설팅으로 참여기업들이 각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을 받는 시간이었다.

이 상담회에는 전북FTA통상진흥센터, KOTRA,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전북테크노파크 등 여러 수출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기업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수출입통관, 원산지 관리, 수입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비재, 산업재, 의료기기 등 분야별 통상닥터 들이 함께하여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참여 기업들의 후속 지원 강화를 위해 교류회 종료 후에는 설문을 통해 참가기업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희망하는 지원사항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시 후속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했다. 또한, 주요 질의응답은 정리되어 후속 지원 자료로 제공됐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公, '침수 걱정 없는 농촌으로'

배수 인프라 확충 · 주민설명회… 상습침수지역 선제 대응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 망성면 일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망성면은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수해를 입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전북본부는 해당 지역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선제적인 재해예방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기존 화산, 창리 배수장의 펌프를 보강하고, 화산 1, 2배수장을 신설함으로써 배수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로써 전체 배수 용량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개선했으며 모든 시설은 우기철을 앞두고 시운전을 마쳐 본격적인 가동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전북본부는 배수로 정비를 통한 유수 흐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총 6.2km에 이르는 배수로를 준설하여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본부는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을 지역 주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지난 20일, 익산시 망성면 화산배수장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망성면 면장을 비롯해 마을 이장단과 지역 농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사업의 추진 배경과 일정, 주요 공사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현장에서 진행된 배수장 펌프 가동 시연은 참석자들에게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도내 탄소소재 활용 기업 방위산업 진입 지원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도내 탄소소재 활용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 특화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소재 활용 방산 관련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차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탄소소재 활용 방산 관련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도내 탄소소재 기반의 방위산업 적용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무기체계전투 및 작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전차, 전투기, 드론, 전자전 장비 등) 및 비무기체계(전투 및 작전 지원을 위한 시스템(통신 장비, 의료장비, 시뮬레이터 등)) 등 방위산업 신규 진입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5천만원의 시작품 제작 지원을 받게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탄소소재 관련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 신규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방산산업을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방위산업과 전북의 주력 산업인 탄소소재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